



우리마을 지킴이

수원캠퍼스 신문배달
고명철 아저씨(56)

경희의 새벽을 여는 이 사람

현재 수원캠퍼스에 신문배달을 하고 있는 고명철씨. 동아일보가 좋아서 18년 동안 신문배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동아일보가 많이 보급되지 못해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동아일보를 보려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고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직 고등학교 교사였다. 교단생활에 대해서 그는 “작은 마을이나 시골에서의 교사 생활은 장이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도시의 교직생활에는 이해관계가 있었다”라면서 “교육자가 아닌 교직자로서의 선생님들이 싫어서 교사를 그만 두었다”고 한다.

매일 밤 12시 30분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신문을 배달하는 그가 마지막으로 신문을 돌리는 곳이 바로 우리학교이다. 고명철 아저씨는 학내에 약 50부 정도의 신문을 배달한다고 한다. 고씨는 학교에 오면 항상 “학교 근처에 학생들의 낭만을 키워줄만한 시설이 없다”며 아쉬워한다. 또한 아침마다 만나는 학생들을 보면서 “석·박사 학위가 쉬운 줄 알았는데 아침까지 잠을 안자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한다.

우리 학교를 마지막으로 그의 배달업무가 끝나면 고명철 아저씨는 공장 집으로 간다. 그리고 요즘 취미 생활인 컴퓨터를 공부한다. “아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 줄 수준”이라며 자신의 실력을 키워해 주었다. 그는 또한 틈틈히 자신보다 더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알려 달라고 쉽게 말하기도 한다. 고씨는 “남이 해주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해보면 쉽다”고 말한다.

우리학교에 신문을 배달하면서 그에게 가장 즐거운 일은 학생들과 만나서 토론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씨의 소망은 개교 50주년 행사 때 1일 교수로 초청되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는 신문배달을 하겠다고 말한다.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고명철씨는 “육십이 작으면 근심도 작다”는 말을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한다. 물론 꿈꾸는 것은 예외라고 한다. “최고는 될수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다”며 “학생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다면 후회없는 삶이라 말할수 있다”고 한다

(김윤택 기자)

지역·의료원 소식

수원시 컴퓨터 알뜰시장

수원시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위한 ‘컴퓨터 알뜰시장’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종합운동장 내 워킹업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중고컴퓨터의 교환과 매매 및 업그레이드와 무상수리 등이 이루어 졌다.

공원질서 확립대책 추진

수원시는 행락 성수기를 맞아 공원이용시민과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공원질서를 파괴하는 등의 각종 행위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12개 공원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무질서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동대문구 ‘민원환경 및 친절봉사제’ 도입

동대문구에서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6월 말까지 ‘민원환경 및

친절봉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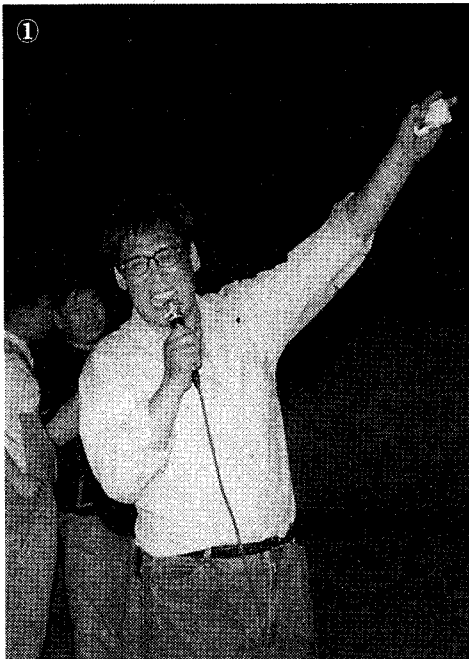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전화친절도, 민원상태, 사무실 환경 등을 평가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모니터 요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한편 매주 금요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민원편의시설 관리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양·한방 건강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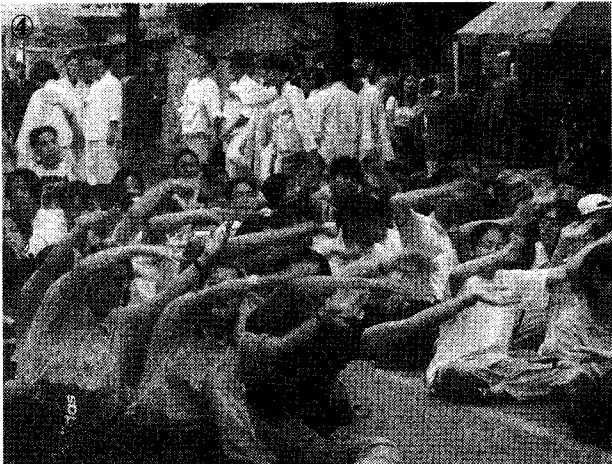
우리 의료원 양·한방종합건강진단센터는 전문인력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사용, 양방건강진단은 물론 과학화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한방건강진단을 실시한다.

IMF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동문가족에게는 2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각종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과 동시에 체질 분류와 그에 따른 건강지도, 처방까지 겸한다. 또한 여자의 경우 유방 촬영과 자궁암 검사를 포함한다. 전화예약은 958-8711-3으로 하면된다.

경희와 지역, 대동제를 넘어
하나된 거리문화 만들기

지난 22일 서울·수원 양캠퍼스에선 대동제를 통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어울림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서울캠퍼스에선 총학생회가 봄 대동제를 맞이해 새롭게 기획한 ‘회기동 거리 문화제’가 있었다. 오후 5시가 가까워 시작된 문화제의 첫 순서는 회기동 주민들이 참가하는 ‘노래자랑’ 대회. 신가네 닭갈비집 사장님과 종업원, 남해횃집의 주방장, 청량 초등학교의 두 여학생, 청량 고등학교의 두 남학생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해 노래 솜씨를 선보였다.



또 오후 7시쯤 시작한 거리문화운동 선포식 순서에서는 이문동에 위치해 있다가 이전으로 이전한 고아원인 ‘성애원’과 자매결연장을 주고 받았는가 하면,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로 선정한 ‘회기동 으뜸가게’에 대한 시상순서를 가지기도 했다. 으뜸가게로 선정된 상점은 남매곰베 주점, 복원 찻집, 닭한마리 칼국수집으로 이들 상점에는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제작한 으뜸가게 간판이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학생 간의 더 친밀한 관계형성에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직접 행사를 기획, 준비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참석한 학생들의 수가 적어 아쉬움을 남긴다. 앞으로 회기동 거리를 밝고 활기찬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하는 데에는 학생들과 주민 사이의 주체적 소비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동제 마지막날인 이날 수원캠퍼스에선 마을 상가 주민들이 공동 농구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술과 돼지 바베큐 안주 등을 준비하여 학생과 주민간에 화합의 자리가 이루어졌다. 공동행사후 곧바로 이루어진 이날 ‘곰짜 바베큐 파티’ 행사는 대동제 행사중



① ‘곰짜 바베큐 파티’에서 학생들을 반기는 주점 ‘따로장’ 주인아저씨
② 회기동 거리에서 진행된 ‘사자 머리대기’
③ 총학생회와 고아원인 ‘성애원’의 자매결연모임
④ 거리문화제를 보며 열광하는 학생들
⑤ 회기동 주민 노래자랑에서 열창중인 아이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다.

한 상가 대표는 “기존의 협찬이나 후원형식으로 이루어졌던 주민과 학생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대동제에 참여하는 관계로 이루어져 많은 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대동제 기간인 22일 인근 지역 소년·소녀 가장들을 초청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남이 기자)

의료원 일지

백혈병의 어두운 그림자
우울속에 사라지는윤 휘 중
(내과 교수)

“어, 다시 나오셨네. 몸은 괜찮으세요?”

2년째 통원 치료중인 환자는 두 달 가까이 자리를 비웠다 나오는 담당 간호원과도 반갑게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환자의 병명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벌써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이년 가까이 되어, 이제 일년 정도만 더 치료하면 완치를 기대하고 관찰기에 들어간다. 급성백혈병 중에도 골수성인 경우는 대개 첫 6개월 이내에 완치를 기대하는 끝내고 이후 관찰만 하게 되는데 반해, 림프구성인 경우는 골수이식을 하지 않는 한 이삼년간 통원치료를 계속하면서 거의 매주 병원에 오게 되기 때문에 학업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어린 나이에 잘 생기는 병으로, 소아에서 더 많이 보였지만, 내과에서는 한창 공부할 나이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인 환자를 흔히 볼 수 있다. 환자는 진단 직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체력을 받고 운동을 즐기고 모 대학에 특기 장학생으로 입학할 예정이었던 고교 졸업 예정자로, 졸지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 어언 이년 가량의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왔다. 진단 직후의 어려운 치료 때문에 대학

입학은 연기하였다. 처음 단났을 때부터 명랑하던 성격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선생님, 저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치료받으면서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의사로서는 사실 바라는 바이지만 실제로는 환자 자신이 힘들어 그리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를 보면서 “내가 만일 백혈병이면 이 아이처럼 잘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의례 그렇듯이 백혈병은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진단이 되어 단기간에 집중적이고도 위험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긍정적인 성격이 아니면 치료를 잘 지속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간 충분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대개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한 결과로 완치된 것이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환자는 모두 도중 탈락하며, 결국은 재발을 가져오게 되기도 한다.

급성백혈병은 일반인에게는 치명적인 병으로 인식되어 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청년 남녀가 숙명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하는 병으로, 창백한 얼굴에 각혈로 빨간 피를 토하며 죽는 모습의 결핵 환자가 자주 등장하다가, 결핵의 치료가 쉬워지면서 백혈

병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었다. 백혈병 역시 빈혈로 인한 하얀 피부색에 빨간 피의 출혈이 대비되어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병으로, 여러 소설, 영화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혈액종양내과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다른 종류의 암보다 치료 결과 극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흥미 있는 질환이다. 다른 암들은 진행된 후에는 완치가 안되고 어떻게든 증상이라도 호전시키고 수명을 늘이는가 주 관심사이며, 결국 그 병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지만, 급성백혈병은 처음 진단 시부터 진행되어 발견되어도 완치율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악성 종양의 대표 격이기 때문이다. 백혈병 치료의 발달로 인해, 영화나 소설에서 젊은 주인공이 삶을 마감하는 방법으로서의 역할도 뇌종양 등 다른 병으로 옮겨간 듯 싶다. 최근의 우리 나라 사정도, 결핵처럼 쉽게 치료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급성백혈병처럼 진행된 중증의 병임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스스로 젊고 명랑한 이 환자처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객이 OK할 때까지-

ok!SK

“다음 기술은 당신의 몫입니다”

“화상이동전화 IMT-2000”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최초의 무선통신 봉화”

제3회 M&M 논문대상 공모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를 설계해주시시오

세계적인 종합정보통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를 개척할 힘있는 생각을 기다립니다. 내일의 인재를 발굴하고 정보통신 학문 발전에 기여하게 될 제3회 M&M 논문대상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지역 · 국내외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

논문주제 (아래 관련 주제 중 택일)

· 정보통신 정책분야
· 정보통신 Marketing 분야
·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신상품 개발 분야

논문분량

· 본문: 200자 원고지 100매 내의 (A4 Size 20매 내의)
· 요약문: 200자 원고지 10매 내의 (A4 Size 3매 내의)
※ 본문은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 총 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내역

등위	수상자수	상금	비고
대상	1명	1천만원	상패
금상	1명	5백만원	해외전학
은상	2명	3백만원	기념품
동상	5명	2백만원	상패, 기념품

· 2인 이상의 공동 논문일 경우 대표자 1명에게만 시상

심사

· 1차: 예비심사
· 2차: 본심사

접수기간 · 1998년 9월 15일~9월 30일

논문접수처 및 문의

· 주소: 100-095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67
SK텔레콤 홍보실 M&M 논문대상 담당자
· 전화: (02)3709-0787~8
· 우편접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필히 기재

기타

· 접수시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응모논문은 창작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함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SK텔레콤 소유임
※ 당선작발표: '98년 10월 중 개별통보

■ 주최: SK Telecom

■ 후원: 정보통신부

SK Telecom